

[9-10] 느낌을 살려 시 낭송하기

교과서 62~65쪽

학년 반 번 이름:

※ 짝과 함께 느낌을 살려 시를 낭송해 봅시다.

㉠	㉡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꼭 김현욱</p> <p>골목길에서 축구공하나가 데굴데굴 굴러 나옵니다. 꼭, 친구 한 명이 헐레벌떡 뒤따라 나옵니다.</p> <p>• 출처: 김현욱(2015), 『지각 중계석』, (주)문학동네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가을밤 윤석중</p> <p>문틈에서 드르렁드르렁</p> <p>누구요? 문풍지예요 창밖에서</p> <p>바스락바스락 거 누구요?</p> <p>문구멍으로 기웃기웃</p> <p>누구요? 달빛이에요.</p> <p>• 출처: 윤석중(2015), 『날아라 새들아』, (주)창비</p>

(1) 시를 낭송하는 사람과 시 낭송에 따라 동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정하여 시 ㉠을 실감나게 낭송해 보세요.

(2) 짝과 나누어 읽을 부분을 정하여 시 ㉡를 실감나게 낭송해 보세요.